『노인복지연구』 2018년 3월 [제73권1호] 한국노인복지학회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3(1), pp. 343-359

제주4·3생존자들의 정신적 외상 연구*

김유경**

국문초록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발한 제주4·3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발생, 당시 2만 명에서 3만 명에 이르는 많은 주민들이 대부분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많은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현재 4·3생존자들에 대한 정신적 외상 관련 질적 연구가 미미하고, 생존자들이 고령에 접어들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신적 외상 연구가 시급한 시점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심주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4·3생존자 16명과 심층면담한 현장 연구 노트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4·3생존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플래시백, 침습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살 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생활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꿈을 통해 재경험 하고 있었다. 또한 물질적으로 풍족해진 현시대를 누리지 못하고 떠난,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생존자들은 4·3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나누려 하기보다 스스로 이겨내고자 애써 노력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4·3생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신적 외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4·3생존자들의 정신적 외상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 제주4·3, 정신적 외상, 4·3생존자들, 양민학살, 질적 연구

※ 투고일자 : 2017. 12. 31. 1차심사 : 2018. 1. 30. 게재확정일자 : 2018. 3. 21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42741).
** 제주대학교 강사, E-mail : essence7009@hanmail.net

Ⅰ. 서 론

제주4·3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당시 국제정세에 크게 영향 받은 사건이다. 제주4·3으로 인해 2만 명에서 3만 명에 이르는 많은 주민들이 대부분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00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2017년 8월 현재까지 희생자는 1만5천4백83명, 유족 6만 1천 30명으로 집계되었다(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그러나 올해 2018년 1년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를 추가로 진행함에 따라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4·3은 오랫동안 좌익세력에 의한 공산폭동으로 인식되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제주4·3을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의 영역이었다. 1960년 4·19 혁명에 힘입은 진상규명운동은 4·3 해결의 시작을 알렸으나, 다음해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해결의 통로는 차단되었다.

이로부터 20여 년간 군부독재체제의 반공법, 국가보안법, 연좌제의 억압 기제로 도민의 입을 통한 4·3 증언은 기대할 수 없었고, 4·3인식과 담론은 국가권력이 독점하였다. 군사정권 하에서 4·3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동으로 규정한 획일화된 공적 인식만이 통용되었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으로 공론화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억압되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또한 4·3을 거론하고 발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박찬식, 2008). 생존자들은 4·3에 대한 말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으며, 소설가 현기영은 1979년 단행본『순이삼촌』을 통해 4·3 진상 일부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였으나 이로 인해 고문과 금서조치를 당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듬해인 1988년 들어 4·3 40주년을 기념하는 공개 행사가 서울과 제주, 도쿄 등지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4·3 추모행사가 열리는 것과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는 50주년이 되던 1998년 제주4·3특별법 제정운동이 본격화, 마침내 2000년 1월 특별법 제정・공포를 이끌어냈다.

연구물들도 이즈음부터 다수 축적되기 시작했다. 민간인 대량학살의 실상을 사회학적으로 제시하여 대량학살이 반드시 극단적인 형태의 비인간화 과정이 개입되어 있음을 살펴본『제주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강성현, 2002), 4·3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5·10선거의 반대에 있다는 보는『5·10선거의 전개과정과 국내 정치세력의 대응』(이기명, 1990), 4·3의 전개과정에서 자행된 제주도민 학살에 대한 미국정부의 개입 수준을

파악한『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허호준, 2003). 4·3의 성격을 미군정의 정책과 관련시켜 분석한『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미군정의 대제주도 정책을 중심으로』(문순보, 2000), 4·3의 배경 형성과 원인에 접근한『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양한권, 1988), 4·3은 통일운동과 반미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제주도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박명림, 1988),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의 활동과 제주도민들과의 관계를 고찰한『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양정심, 1995) 등 이외 다수의 연구들이 4·3 원인과 배경, 전개과정 그리고 정치·사회적인 측면을 통해 4·3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4·3에 대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무고한 희생자와 생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고 침묵을 깨우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지금 시점에서는 4·3생존자들에 대한 정신적 외상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제주4·3을 마주할 때 역사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살았던 생존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공감하지 않고서는 4·3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3 속에서 무수히 죽어간 이들의 이야기와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이 일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4·3의 역사에 가까이 다가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4·3생존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정신적 외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질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거나 연구참여자가 만들어 내는 주관적 세계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므로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질적 분석은 정신적 외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김경희, 2011; 김현경, 2011; 이나윤, 하양숙, 2012; 유혜란, 2013).

4·3생존자들의 정신적 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은 제주4·3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Judith Herman(1997)은 외상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세계가 의미 있다는 느낌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공동체의 반응은 외상의 궁극적인 해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았다(최현정, 2009). 즉 트라우마는 단순히 인식의 대상으로서 객관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공감되어야 한다(전진성, 2007). 이에 본 연구는 4·3생존자들의 정신적 외상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연구질문 1. 제주4·3은 4·3생존자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외상을 남겼는가?
연구질문 2. 4·3생존자들은 그 자신의 정신적 외상을 나누고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제주4·3

1) 제주4·3의 정의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제2조)를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2003).

2) 제주4·3 담론의 변화

제주4·3은 '사건' 이외에도 '항쟁', '폭동', '무장 봉기', '민중 수난', '양민학살' '사태', '반란' 등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왔다. 1980년대까지 우파 진영에서는 4·3을 좌익세력의 선동에 의한 공산폭동으로 파악했으며, 좌파 진영에서는 4·3을 민중들의 즉자적인 봉기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 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했다. 80년대 이후 제주4·3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입장은 민중항쟁론이다. 이는 4·3과 좌익세력과의 연계보다는 항쟁의 주체를 제주민중으로 파악함으로써 4·3을 새롭게 볼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5·10 단독선거반대는 정치적 투쟁에서 보여준 유격대와 일반 제주도민의 연대는 항쟁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다(양정심, 2006). 그러나 현재 제주4·3 정명(正名)은 합의되지 않았다.

3) 1947년 3·1 기념행사와 제주4·3

1947년 3월 1일은 해방 후 두 번째 맞는 기념행사였다. 이 기념식에서 대회장인 안세훈은 "3·1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통일 민주국가를 세우자"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각계의 대표들이 나와 연설을 했는데, 주로 3·1 정신을 계승 자주독립을 전취하자는 내용이었다. 또 삼상회의 절대지지,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촉구하는 구호도 나왔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3만여 명의 도민들이 참여한 이날, 경찰은 집회의 해산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아이가 기마경찰의 말굽에 치여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관람 군중들이 거칠게 항의하자 무장경찰이 총격을 가했다. 이 일로 6명 사망,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발포사건으로 제주도내 여론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미군정과 경찰은 사태 해결보다는 시위 주동자를 검거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좌익진영은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미군정과 경찰의 만행을 폭로하며 희생자 구호금 모집에 돌입하였다. 이에 도청, 관공서는 물론 은행, 회사, 학교, 운수업체, 통신기관 등 도내 대부분의 단체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군정당국은 이에 맞서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 등 우파 청년단체원들을 제주에 대거 내려 보내 물리력으로 검거공세를 전개함으로써 미군정과 제주도 좌파세력이 전면 대립국면으로 돌입했다. 결국 3·1절 발포사건은 '4·3으로 가는 도화선', 곧 기점(起點)이 되고 말았다(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2003).

4) 제주4·3 발발 원인

4·3 발발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 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2003). 그러나 1980년까지 5·10선거 반대를 명분으로 한 제주도의 4·3봉기에 대한 논의는 금기시 되었다(허호준, 2007).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자가 제주도내 마을 노인당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난 후 4·3관련 면담과 녹음에 동의를 밝힌 4·3생존자 남자 6명, 여자 10명 총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출생연도 분포는 1926~1942년(1948년 당시 연령, 7~23세)생까지이며, 기본 표집은 ① 1948년 기준 7세 이상 된 자, ② 대화 가능한 자, ③ 인지장애를 겪고 있지 않는 자, ④ 자발적 참여자, ⑤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표 1>에서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연령과 연령별 구성 인원을 보면 90세 1명, 86세 1명, 84세 1명, 83세 2명, 82세 2명, 79세 1명, 77세 2명, 78세 3명, 75세 2명, 74세 1명이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연구참여자	성별	출생 연도 (2015년 현재 연령)	1948년 당시 연령
A	여	1939(77)	10
B	여	1938(78)	11
C	여	1934(82)	15
D	여	1934(82)	15
E	남	1941(75)	8
F	여	1941(75)	8
G	남	1933(83)	16
H	남	1938(78)	11
I	남	1926(90)	23
J	여	1932(84)	17
K	여	1937(79)	12
L	남	1933(83)	16
M	여	1942(74)	7
N	여	1939(77)	10
O	여	1938(78)	11
P	남	1930(86)	19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최소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면담하였다. 면담 시간은 최소 180분에서 최대 210분 소요되었으며,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선택에 따라 노인당 혹은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노인당에서의 개별 면담은 여러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면담 시작 전 라포 형성을 위해 오늘 날씨와 기분은 어떠한지 등의 일상적인 대화를 한 후, “OO님의 소중한 4·3 경험을 듣고자 합니다”라는 개방적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의 4·3 경험담이 전개되면 연구자는 경청에 몰입하였으며, 필요에 의한 질문은 면담이 끝난 후 실시하였다. 면담 말미에 연구자가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 시 4·3 당시 생각으로 휩싸일 때면 심리적·신체적으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 “자녀들과 4·3 이야기를 나누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외상의 깊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담 후 연구참여자 16명에 대한 모든 녹음 내용은 연구자가 전사(轉寫)하였으며, 이후 여러 번 정독하였다.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다시 해당 연구참여자를 만나 원자료를 보충, 맥락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Braun & Clarke(2006)의 '중심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적용하여 4·3생존자들의 정신적 외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귀납적 탐구방법으로서의 중심주제 분석 방법은 자료의 주요 패턴에 관해 기술하는 것뿐 아니라 주요 중심주제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암묵적인 의미(latent meaning)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김유진, 정가윤, 2014 재인용).

그러므로 이 분석 방법은 생존자들의 4·3 경험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정신적 외상의 유형들을 거시적 혹은 미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은 전사한 원자료 A4용지 112장과 현장 기록지 114장을 바탕으로 하였다. 먼저 전체적으로 정신적 외상이 드러나는 문단을 표시한 후 기본 코드가 되는 문장 132개를 추출, 이를 비슷한 의미를 지닌 코드들끼리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란, 자료 속에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패턴을 말한다.

4. 연구의 윤리적 측면 고려

연구 시행에 앞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 녹음에 대한 허락과 함께 참여자 이름은 비공개로 제시하고 면담 내용은 공개가 됨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다. 그리고 면담 종료 후에는 보답으로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고령의 4·3생존자들로서 모두 제주어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원자료에 대한 코딩과 범주 분석은 제주어를 이해하는 본 연구자와 4·3 구술채록 경력자 1인이 동료가 되어 검토하는 방법을 활용,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4·3생존자들이 개인의 4·3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터뷰 중간에 질문하는 것을 삼가, 생존자의 고유 경험에 입각한 순수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Ⅳ. 연구결과

연구질문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3개의 범주화와 3개의 중심주제로 도출되었다. <표 2>에 제시한 범주화 → 중심주제 → 세부 내용으로 살펴보면, Ⅰ. 침습 → 지워지

지 않는 상(像)→ ① 학살목격, ② 꿈, ③ 침투 증상, ④ 애도의 부재 Ⅱ. 시대적 괴리감 → 빈곤과 풍족, 두 시대의 경험→ 미안함 Ⅲ. 정신적 외상, 안고 살아가다→ 나눌 수 없는 깊은 상처→ 혼자 감내하다로 분석할 수 있었다. <표 2> 이후 해당 면담을 제시하였고, 면담 말미에는 '참여자, 2015 현재나이/1948년 당시 연령'을 표기하였다.

<표 2> 중심주제

	연구질문	범주화	중심주제	세부 내용
Ⅰ	어떠한 정신적 외상을 남겼는가?	침습	지워지지 않는 상	① 학살 목격 ② 꿈 ③ 침투 증상 ④ 애도의 부재
Ⅱ		시대적 괴리감	빈곤과 풍족, 두 시대의 경험	미안함
Ⅲ	정신적 외상을 나누고 있는가?	정신적 외상, 안고 살아가다	나눌 수 없는 깊은 상처	혼자 감내하다

1. 지워지지 않는 상

미군보고서에 의하면 9연대는 모든 저항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중산간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을 채택했고, 1949년 3월까지 제주도 인명피해 1만 5천명이라고 밝히고 있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집중된 대량학살계획은 제주도를 빨갱이의 섬으로 간주하면서 무차별적 희생으로 몰고 갔고, 이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인권유린 사태가 속출하였다. 황상익(1999)은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그동안 '죽어야 할 자', 더 나아가 '죽여야 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며, 빨갱이라는 낙인은 그에게 어떤 만행도 가능했었다고 언급한다.

1) 학살 목격

제주4·3은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이 컸다는 점에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 민간인 희생은 온 가족의 몰살 또는 부모 형제와 친족의 죽음으로 이어지면서 돈독한 공동체의 와해와 가족체계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어린 나이에 죽음을 목격한 이들은 현재까지 당시의 참혹한 형상이 순간 기억으로 재생됨에 따라 심리적 건강을 영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밥을 먹을 때도 '왜, 그 시국이 그렇게 되었던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어디 놀러갔을 때도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노인당에 가서 심심하면 할망(할머니)들이 앉아서 화토를 치는데, 그 화토를 치면서도 아버지 희생당한 그 모습이 떠오르면 정신이 돌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해두고는 밖에 나가서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들어가요. 눈 도려내고, 귀 도려내고, 좋은 이빨 도려내고, 배설(장기)들이 밖으로 나온 아버지를 안고 울던 내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땐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지금도 생생해. 배설이 땅바닥에 나왔던 모습. 죽창으로 찔러버리니까 배설이 밖으로 나온 거. 그 당시 사진이라도 있으면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생생하게 보았으니 훤하지."(참여자 O, 78세/11세)

"동네에 어르신들 앉아서 노는 쉼터가 있잖아요. 쉬는 팡: 쉼터. 나무 그늘 아래 쉼터. 그런 쉼터에 산사람들 목을 잘라다가 나열을 시키는 거라: 순번대로 1, 2, 3, 4... 여자 남자 구분을 잘 못해요. 머리가 다 기니까: 그때는 이발을 못하니까: 산에서만 살아버리니까: 피가 흐르니까 분간을 잘 못해. 머리 잡고 갖다놔서 진열해서 마을 사람한테 다 와서 구경하라고 보라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산사람을: 토벌대가 가서 (산사람들의) 목을 잘라 온 거지. 8살 때 봤지. 비참했어요. 그렇게 비참했어요."(참여자 E, 75세/8세)

2) 꿈

4·3생존자들의 꿈 유형은 체험적 꿈(참여자 H, F)과 보상 기능으로서의 꿈(참여자 O) 2가지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참여자 H, F) 4·3생존자들은 역사적 공간에서의 경험을 꿈을 통해 재경험하고 있었다. 프로이트(Freud)는 꿈에서는 깨어 있을 때처럼 감각과 형상들이 외부 공간에 자리함으로써 공간 역시 의식되므로, 꿈속에서 지각 및 형상에 대한 정신의 관계는 깨어 있을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김인순, 2006). 후자의 경우(참여자 O)는 결핍으로 남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꿈을 통해서 이루고 있었다. 융(Jung)은 꿈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의식에 대한 보상기능이라고 보았다(이부영, 2008). 프로이트(Freud)는 외상성 신경증의 바탕에는 외상을 가져온 순간에 대한 고착이 깔려 있으며, 사건을 경험한 이는 꿈속에서 규칙적으로 외상적 상황을 반복한다(임홍빈, 홍혜경, 2009).

"무서운 꿈이죠 4·3 때 총소리나면 숨으러 다녔는데, 이러한 장면이 꿈으로 가끔 나와요"(참여자 H, 78세/11세)

"지금도 총알이 집으로 쌩쌩 날아오고 집 담 옆에 숨어서. 그 공포에. 나이 들어서도 그 꿈을 꾸고 막 떨리고 눈으로 안 봐서는 몰라."(참여자 F, 75세/8세)

"아버지 만나는 꿈을 꾸어요 '내 딸아, 내 딸아' 하면서 안아보기도 하고, 뽀뽀해주기도 하고 자주 나와요. 그 전에는 자꾸 꿈을 꾸니까 절간 부적을 머리맡에 놔두고 잠을 자기도 하고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항상 부르기도 하고 그것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식 찾아오는 것이 원칙인데, 내가 그 부적을 해버리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부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버지를 꿈에서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보이기도 하고 비가 올 때는 꿈에 한 번씩 나타나요. 나이가 들어도 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아버지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참여자 O, 78세/11세)

3) 침투 증상

외상 기억의 침습적 특성이 외상 후 심리적 증상을 유지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일관된 경험적 근거들이 존재하는 가운데(주혜선, 2012; Ehlers, 2010), 침습은 평온한 일상을 깨는 불청객으로 과거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킨다.

"4·3 경험이 확 올라와. 누웠다가도 이불을 확 걷어. 잠을 못 자거든. 일할 때는 4·3 생각이 안 나는데, 누웡(누워서) 자다가 잠이 안 들면 4·3 생각이 떠오르고 마을 사람들 집단학살이 있었던 학교 근처를 넘어갈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참여자 D, 82세/15세)

"4·3 당시 생각이 날 때는 실내에서 걸어 다녀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당시 생각만 하면 몸에서 더운 김이 올라와서 막 땀이 나. 지금도 그 생각하면 열이 막 올라와 지금도."(참여자 I, 90세/23세)

"4·3 생각하면 신경이 과민 될 때가 있어. 머리가 흔들거리는 것도 같고"(참여자 K, 79세/12세)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하지 말자 해도 항상 생각하게 돼요."(참여자 O, 78세/11세)

4) 애도의 부재

프로이트에 의하면 애도는 애도자가 자신의 리비도를 상실한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점차적으로 그리고 고통스럽게 떼어내는 과정으로 보았다. 베라나 카스트(Verena Kast)는 애도가 억압되면, 당사자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는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우울을 좇아가보면 종종 완결되지 않은 애도 과정, 애도 자체의 억압 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채기화, 2015). 정신적 외상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고착을 함축하는 것으로, 마이클 칸(Michael Kahn)은 고착은 특별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이전의 단계에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 많은 양의 에너지가 어떤 생각이나 기억으로 집중될 때, 그것은 중요하게 되며 정서로 채워지게 된다고 보았다(안창일, 2008).

생존자들에게 4·3은 한(恨)의 정서로 남아 있다. 한의 정서는 융의 콤플렉스이론과 유사하다. 그는 콤플렉스에 대해 '감정적으로 강조된 심리적 내용' 또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심적 요소의 어떤 일정한 군집'이라고 정의한다. 콤플렉스는 의식을 자극하여 그 질서를 교란시키며, 사고 흐름을 훼방 놓고 당황하게 하거나 화를 내게 하거나 또는 우리의 가슴을 찔러 목메게 하는 마음속의 어떤 것들이다(이부영, 2008).

"4·3, 감정이 부풀지. 마음이 울딱하면 우울증 걸린 것처럼. 남의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하는 것도 부럽고, 옆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면 부럽고."(참여자 K, 79세/12세)

"잠을 못자요. 지금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정신과 약을 복용한 지는 한 6년이 되요. 신경안정제. 이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자요. 지금도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잠을 자요. 4·3 생각하면 노이로제 걸리는 식으로 그게 자꾸 떠올라요."(참여자 G, 83세/16세)

2. 빈곤과 풍족, 두 시대의 경험: 미안함

4·3생존자들은 물질적으로 빈곤과 풍족의 두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에 비해 풍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희생된 이들이 중첩되면서 '나만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사건 발발 7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생존자들

의 마음 한편에는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이 떠나지 않고 있다.

"4·3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 이렇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죽어버린 아버지, 할아버지 너무 억울해서……. 라디오 하나 못 들어보고, 테레비 하나 못 보고"(참여자 D, 82세/15세)

"노인정에만 와도 생각이 난다니까. 부모님이 살아시민(살았더라면) 이런 곳에 한 번이라도……. 눈물이 난다고……. 이런 세상을 살아볼 건데. 노인정에만 오면 그 생각이 난다고. 아, 우리 부모님도 살아시민 이런 곳에서 한 번 호강해볼 걸. 그런 생각만 나."(참여자 K, 79세/12세)

3. 나눌 수 없는 깊은 상처: 혼자 감내하다

4·3생존자들은 4·3 경험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 "당시 고생했었다"라고 거시적으로 이야기만할 뿐, 구체적인 경험과 마음속 깊은 상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과거 4·3이 '빨갱이' 사건으로 인식되어왔던 탓에 생존자들에게 4·3은 '나누어야 할' 사건이 아니라 '감춰야 할 사건'으로 여기며 살았다. 따라서 이러한 과거의 삶이 체화되어 4·3 경험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상황이 매우 비인간적이어서 그 행태에 대해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연구자: 자녀들과 4·3 이야기를 하십니까?*
- *참여자: 가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서 고생했다는 말만 하지.*
- *연구자: 아픈 감정도 이야기 하십니까?*
- *참여자: 그런 말은 안 하고 감정 아픈 것은 안 하고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속마음은 안 말해. 자식들한테 말을 하면 자식들만 속상할거니까. 나는 자식들한테 자세히 이야기 안 해. 그 시대에 고생했다는 말만 할 뿐.*
  (참여자 K, 79세/12세)

"아이들 하고는 4·3 대화를 못하지. 아이들은 잘 모르지."(참여자 C, 82세/15세)

"억울하면 나 혼자 억울한 것이지."(참여자 H, 78세/11세)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 나타난 제주4·3생존자들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중심주제는 '지워지지 않는 상'과 '빈곤과 풍족, 두 시대의 경험', '나눌 수 없는 깊은 상처'로 각각 도출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워지지 않는 상' 중심주제는 다시 세분화되어 학살목격, 꿈, 침투 증상, 애도의 부재로 구분되었다. 생존자들은 좋은 시절이 왔지만 과거 공포에 떨었던 순간과 죽음 목격은 잊을 수 없다며 외상 사건에 대한 순간 기억이 생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에 수반되는 신체적 증상으로 심장 두근거림(참여자 A), 열감과 진땀 현상(참여자 I), 불면증(참여자 G)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빈곤과 풍족, 두 시대의 경험' 중심주제에서는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노인정에 올 때면 희생된 부모님 생각이 난다는 이야기 등을 통해 4·3생존자들이 오랜 세월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Judith Herman(1997)은 외상의 완결에는 완성된 회복은 없으나, 일생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완결의 좋은 지표가 된다고 말한다.

셋째, '나눌 수 없는 깊은 상처' 중심주제에서는 혼자 감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 기저에는 분노와 심리적 고독감, 억울함 등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직도 그 일을 떠올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심장이 벌렁거려요"(참여자 A, 77세/10세)

"고독하고 지금도 억울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아무리 자식들 손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 (희생된) 부모 형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참여자 L, 83세/16세)

"4·3이 일어났기 때문에 좋은 세월을 고생하면서. 아, 나이가 70이 넘어 부렀구나 하는. 그런 것에 억울해."(참여자 F, 75세/8세)

4·3생존자들은 분노와 고독, 억울함 등의 감정을 호소하면서도 가족 혹은 타인과 심리적 고통을 나누려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 세월 강요된 침묵이 생존

자들의 '표현 부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신적 외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Brewin, Daglesish, & Joseph(1996)는 외상 기억이 이야기 기억으로 전환이 가능할 때야 비로소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외상 기억이 구체화될수록, 외상에 대한 감각기억이 언어화될수록, 외상 내러티브가 구조화될수록 외상 경험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유 정, 2015). 이는 단지 말함으로써 해소된다기보다 구체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감정 표출이 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Judith Herman(1997)은 정서가 수반되지 않는 진실만을 진술하는 것은 치료 효과가 없다며, 정서 상태를 기술하는 것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사실을 기술하는 것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오랜 세월 그 자신의 경험과 심리적 고통을 말하지 못했던 고령의 4·3생존자들에게 경험의 구체화와 정서의 표출을 돕는 일은 시급하다. 그러나 이를 프로그램화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심리지원 공간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간 확보 시 염두에 둘 것은 4·3이 제주도 전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생존자들의 분포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고령 생존자들이 심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오수성(2017)은 국가폭력에 의해 심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일반 치료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전문 치유센터를 국가가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의 경우도 고문이나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전문 치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전한다.

심리지원 공간의 존재는 4·3생존자들에게 '우리를 위한 공간이 있음을' 느끼게 하여 생존자들의 심리적 고독감을 완화하고 표현의 자발성을 독려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로 파악할 수 없는 제주4·3생존자들의 정신적 외상을 심층면담을 통해 조명하고 그들의 후유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연구참여자에 대한 결과이므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을 확대하여 생존자들의 정신적 외상 유형을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성현(2002). **제주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대량학살 시기(1948년 10월 중순-1949년 5월 중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희(2011).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수행에서의 면담 쟁점과 전략.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5(1), 5-25.

김유진, 정가윤(2014). 베이비부머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이해-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 에세이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4(2), 283-293.

김인순 역(2006). **꿈의 해석**, Sigmund Freud, 1899,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경기 파주: 열린책들.

김현경(2011).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 이후 용서 체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5(1), 59-85.

문순보(2000).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미군정의 대제주도 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명림(1988). **제주도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찬식(2008). 4·3**과 제주역사**. 제주: 각.

안창일 역(2008). 21**세기에 다시 읽는 프로이트 심리학**, Michael Kahn, 2002, Basic Freud-Psychoanalytic Thought for the 21st Century, 서울: 학지사.

양정심(1995).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정심(2006). 배제된 기억-제주4·3항쟁의 역사. 4·3**과 역사**, 6, 55-73.

양한권(1988).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수성(2017). 국가폭력과 트라우마-토론문. 4·3**과 역사**, 17, 377-383.

유 정(2015). 심리적 트라우마의 정보처리. **인간·환경 · 미래**, 14, 29-65.

유혜란(2013). **탈북민을 통하여 본 북한체제-트라우마 불안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기명(1990). 5·10**선거의 전개과정과 국내 정치세력의 대응**.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나윤, 하양숙(2012).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경험. **간호학의 지평**, 9(2), 83-93.

이부영(2008). **분석심리학 -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임홍빈, 홍혜경 역(2009). **정신분석 강의**, Sigmund Freud, 1916~1917(1915~1917), Vorlesungen zur Einführung in die Psychoanalyse, 경기: 열린책들.

전진성(2007). 트라우마, 내러티브, 정체성-20세기 전쟁 기념의 문화사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 **역사학보**, 193, 217-243.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서울: 선인.

주혜선(2012). **자서전적 외상 기억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심리적 증상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채기화 역(2015). **애도 – 상실과 마주하고 상실과 더불어 살아가기**, Verena Kast, 2013, Trauern-Phasen und Chancen des psychischen Prozesses, 서울: 궁리.

최현정 역(2009).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Judith Herman, 1997, Trauma and Recovery-The Aftermath of Violence, 서울: 플래닛.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2018). **제주4·3사건 희생자 신고 및 결정 현황**. http://www.pasthistory.go.kr/. 제주4·3사건처리. 2018/03/26.

허호준(2003).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5·10 선거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호준(2007). 제주4·3 전개과정에서의 5·10선거의 의미-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7(2), 267-305.

황상익(1999). 의학사적 측면에서 본 '4·3',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제주4·3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편, **제주4·3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pp. 304-337.

Braun, V., & Clarke, V.(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77-101.

Brewin, C. R., Daglesish, T., & Joseph, S.(1996). A Dual Representation Theor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ological Review,* 17, 670-686.

Ehlers, A.(2010). Understanding and treating unwanted trauma memories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Psycholigy,* 218(2), 319-345.

Abstract

A Study of the Trauma of Jeju 4·3 Survivors

Yukyung Kim
Instructor, Jeju National University

With March 1st, 1947 being a starting point, the Jeju 4·3 occurred on April 3rd, 1948, the same period during which the cold war system was go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Soviet Union,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At that time, from 20,000 to as many as 30,000 local residents became victims of the power exercised mostly by the central government. Despite the great number of casualtie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qualitative research covering the trauma of 4·3 survivors so far. In addition, as the number of survivors is declining with age, there is an urgent need of more studies on their psychological trauma. As such,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btained from the field research notes of in-depth interviews with 16 4·3 survivors, adopting thematic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reveal that the survivors have been experiencing frequent flashbacks and invasions in their daily life. Not only does the aftereffect of witnessing the massacre still have an impact on their lives, but they also re-experience it in their dreams. Moreover, rooted deeply in the minds of the survivors is the sense of regret for the victims who were killed without ever getting a chance to enjoy the material affluence of the present day. Even so, the survivors have been struggling to cope with psychological distress on their own, rather than share it with others. This study aims to vividly convey the trauma suffered by Jeju 4·3 survivors through their voices, and further, to provide basic data in order to understand and sympathize the psychological wounds of 4·3 survivors.

Key words : Jeju 4·3, trauma, 4·3 survivors, massacre of innocent people, qualitative research